

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해주신 한·일 원산회의

와 참석해주신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의 불안감에 직접 대응, 안전 문제 착실하게 처리”

호사카 신(保阪伸)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차장

오늘 한·일 원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규 장관께서 참석하시는 가운데 본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인접한 국가로서, 자국의 자원 부족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동지방의 자원에 의존하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추진, 셰일 혁명 등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을 잘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잠시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 후쿠시마의 부흥·재생

먼저, 후쿠시마의 부흥과 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은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의 부흥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오염수 대책은 경제산업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후쿠시마의 부흥과 재생을 위하여 일본 정부도 전면에 나서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전력으로 부응코자 합니다.

도쿄전력의 마사다 부사장이 발표할 내용이지만, 해체와 오염수 대책에 있어서 원자로 내 상황에 대한 진전과 함께 동토벽 등 중층적인 대책을 통한 오염수 발생량 대폭 저감 등 진행 업무의 효과가 착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 부지 중 약 96%에 달하는

작업 구역에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할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IAEA 또한 '주변 해역 및 원양에서 방사성 농도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WHO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 있기에 공중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한·일 양국의 관계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와 주변 해역의 안전성에 대해 최대한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원자력 정책에 대해

지난 달, 2050년의 에너지 전략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한 경제산업대신 주최 전문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제언 가운데, 원자력 발전은 '탄소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Practical option for Decarbonization)'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회 신뢰 회복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한 원자로 추구, 후행 핵주기 산업 기술의 개발, 인재·기술·산업 강화에 즉시 착수하여 후쿠시마 사고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책임감 있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방침을 정하는 「에너지기본방침」의 검토에 착수하여, 이러한 제언을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인 심의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4기의 원자로가 규제위원회의 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기의 가압경수로가 재가동하였으며, 오이(大飯) 4호기, 겐카이(玄海) 4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준비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 카리와(柏崎刈羽) 6,7호기에 대해 비등수형 원자로 최초의

설치 변경 허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지만, 도망치지 않고 정부와 산업체에서 국민의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각각의 문제를 착실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 한국의 원자력정책

한국에서는 지난해 원자력정책의 큰 전환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인 감축을 실시할 방침을 승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안전성 향상이나 해체와 관련하여 원자력과 관련한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높은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 진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계의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하고도 12기의 원자로가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향후 2기의 원전이 해체 절차에 이르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수의 발전소가 아직 해체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교훈과 노하우를 얻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마치며

오늘의 의논이 미래의 발전에 유의미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산업계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교류가 촉진될 것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